

# Morning Meeting Brief

## Strategy

### [다음주 시장은?] 선행 PER 7 배 이하에서 2Q 프리어닝 시즌

-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반도체 업종과 관련한 악재성 이슈가 쏟아지며 KOSPI 급락
- 다음주 2분기 프리어닝 시즌 돌입. 7월 7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분기점
- KOSPI 선행 PER 6.65배에 불과. 기존 주도주 비중확대, 매집 전략 강화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 [퀀틴전시 플랜] 메타 충격에 반도체 급락, 또다시 매도 사이드카 발동

- 메타발 시 인프라 과잉 우려, 반도체 차익실현 압력 확대
- 외국인 매도·환율 부담 속 리밸런싱 압력 지속
- 반도체 급락에 업종별 순환매 지속, 은행·음식료 강세 뚜렷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 Global Strategy

### [THE GLOBAL 주간 증시 전략 / 7월 2주차] 7월 글로벌 증시. 관심 사항. 방향성이 아닌 변동성. 필요한 건 신중함

- 6월 경험했던 투자자 학습효과(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 무너지면, 7월 증시 변동성 확대 예상
- 7월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변수(고용, 물가, 통화정책) 산적. 방향성 아닌 변동성 요인
- 물가, 금리 불안 상존 시, 증시가 상승하기 쉽지 않은 환경. 메타발 시 인프라 확장 사이클 종료 우려 부각

문남중. namjoong.moon@daishin.com

## Macro

### 미국 고용: 과열 우려를 덜어낸 것에 만족

- 미국 고용 4개월 만에 시장 예상치 하회, 실업률은 4.2%로 하락
- 고용 과열에 대한 우려는 낮아졌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크게 변하지 않아
- 연내 인상 허들 높게 보고 있으나, 시장의 인상 전망은 계속될 가능성

이정훈. jhoon.lee@daishin.com

## Commodity

### 돌아온 슈퍼 엘니뇨, 곡물보다 강할 코코아

- 재개방된 호르무즈 해협, 수출 정상화 기대에 진정된 비료발 농산물 대란
- 주요 곡창 지대에 강우량 개선시킬 슈퍼 엘니뇨, 수확 가이드선스 상향 가능
- 엘니뇨로의 전환, 지금부터는 곡물이 아닌 소프트 섹터가 주도할 구간

최진영. jinyoing.choi@daishin.com

[2Q26 Preview] 신한지주: 편안하게 매수하시면 됩니다.

---

- 2분기 순이익 비이자이익 실적 개선에 따라 컨센서스 소폭 상회 전망
- 중앙그룹 총당금 가장 미미, ELS 총당금 일부 환입 예상
- 하반기 자사주 추가 매입 9,000억원도 가능할 전망, PBR 0.75x

박혜진, [hyejin.park@daishin.com](mailto:hyejin.park@daishin.com)

---

## 선행 PER 7배 이하에서 2Q 프리어닝 시즌

-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반도체 업종과 관련한 악재성 이슈가 쏟아지며 KOSPI 급락
- 다음주 2분기 프리어닝 시즌 돌입. 7월 7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분기점
- KOSPI 선행 PER 6.65배에 불과. 기존 주도주 비중확대, 매집 전략 강화

###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반도체 업종과 관련한 악재성 이슈가 쏟아지며 KOSPI 급락

KOSPI 약세 지속하며 8,000선 하향 이탈. 1) 오픈 AI IPO 일정 연기(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소식. 1조달러 수준의 기업가치를 목표했으나, 투자금 모집에 어렵기 때문. AI 투자에 대한 의구심 확산. 2) 애플은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제품 가격 인상, 반도체 비용 부담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 증폭, 3) 메타가 여분의 AI 연산 자원을 외부에 판매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식 또한 반도체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을 자극

반면 긍정적인 이슈도 존재.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AI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 생산 공장 확대에 따른 기대감 확산. 여기에 한국 6월 수출은 전년 대비 +70.9% 급증한 1,022.5억달러를 기록. 이번에도 반도체가 수출 호조를 주도. 반도체 6월 수출은 전년 대비 +199.5% 증가한 448.2억달러. 컴퓨터 수출도 +308.8% 증가한 51.1억달러를 기록. AI 투자 확대에 따른 SSD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 다만 DRAM과 SSD 수출단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점은 반도체 가격 고점 통과 우려로 이어지며 차익매물 압력 확대

### 다음주 2분기 프리어닝 시즌 돌입. 7월 7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분기점

현재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의 3개월 컨센서스는 85.6조원, 1개월 컨센서스는 84.8조원. 최근 반도체 수요, 수익성 논란과 인센티브 반영에 따라 실적 전망치 소폭 하향 조정(1개월 컨센서스가 3개월 하회). 그럼에도 3월 말 기준 3개월 컨센서스 48.4조원, 1개월 컨센서스 54.5조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익 모멘텀은 뚜렷하며 실적 개선에 근거한 상승 추세 이어갈 것으로 예상

비반도체 업종에서의 이익 개선 가능성도 유효. 최근 비반도체의 수출은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영업이익 전망은 전년대비 정체, 전분기 대비 역성장으로 컨센서스 형성. 향후 수출 모멘텀대비 실적 눈높이가 크게 낮음을 시사. 2분기 비반도체 업종, 특히 수출주들의 실적 호조,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 KOSPI 선행 PER 6.65배에 불과. 기존 주도주 비중확대, 매집 전략 강화

견고한 실적 모멘텀, 실적 전망 상향 조정에 힘입어 현재 KOSPI의 12개월 선행 EPS는 1,150p로 레벨업. KOSPI 8,000선 하향이탈로 12개월 선행 PER은 6.65배에 불과. 금융위기(당시 저점 PER 6.27배) 이후 최저 수준. 실적대비 극심한 저평가 영역. 이 과정에서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조선, 방산, 기계 등 기존 주도주들이 주간, 월간(선행 EPS대비 주가 변화율) 기준 저평가 영역으로 전환, 저평가 정도 확대

2분기 실적 결과가 예상보다 양호할 경우 강한 상승 반전 예상. 만약 실적 결과가 예상보다 부진하더라도 쇼크만 아니라면 불확실성 해소, 저평가 매력 재평가로 분위기 반전 가능. 그만큼 업황/실적 우려와 불확실성이 주가에 충분히 선반영되어 있다고 판단. Deep Value 국면에서 추가적인 하락, 급락은 KOSPI 단기 UnderShooting 국면으로 판단. 기존 주도주 비중확대, 매집 전략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메타 충격에 반도체 급락, 또다시 매도 사이드카 발동

- 메타발 시 인프라 과잉 우려, 반도체 차익실현 압력 확대
- 외국인 매도·환율 부담 속 리밸런싱 압력 지속
- 반도체 급락에 업종별 순환매 지속, 은행·음식료 강세 뚜렷

### 메타발 시 인프라 과잉 우려, 반도체 차익실현 압력 확대

메타가 잉여 AI 컴퓨팅 자원을 외부에 판매하는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됨. 해당 내용은 5월 메타 주주총회에서 이미 언급된 사안이지만, 시장에서는 AI 인프라 투자 과잉 가능성과 데이터센터 투자 사이클 둔화 우려로 해석

여기에 애플이 중국 메모리 업체 2곳과 공급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점도 부담으로 작용. 중국 메모리 업체의 공급 확대가 메모리 병목 완화와 가격 상승세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반도체 업종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 이에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이 급락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 다만 해당 이슈들이 실제 메모리 수요 둔화나 수익성 훼손으로 이어질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 7월 7일 예정된 삼성전자의 잠정실적 발표와 가이드언스를 통해 반도체의 중장기 수요와 수익성에 대해 점검할 필요

**반도체:** 삼성전자(-9.1%), SK하이닉스(-14.6%), SK스퀘어(-13.2%)

### 외국인 매도·환율 부담 속 리밸런싱 압력 지속

외국인 투자자는 금일에도 4조 4천억원을 순매도하며 10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지속. 대형 반도체주 중심 매도가 이어진 가운데, 메타발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가 차익실현 압력을 확대한 것으로 판단

최근 변동성 확대에도 현재 KOSPI의 3월 말 대비 수익률은 51.4%로 미국 S&P500 14.6%, 일본 Nikkei 225 35.4%, 중국 상해종합지수 5.7%를 크게 상회. 이에 주요국 증시 대비 아웃퍼폼에 따른 비중 조절 성격의 리밸런싱 매물 출회가 지속

달러-원 환율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후 3시 30분 기준 1,555.8원으로 마감하며 상승세를 지속

### 반도체 급락에 업종별 순환매 지속, 은행·음식료 강세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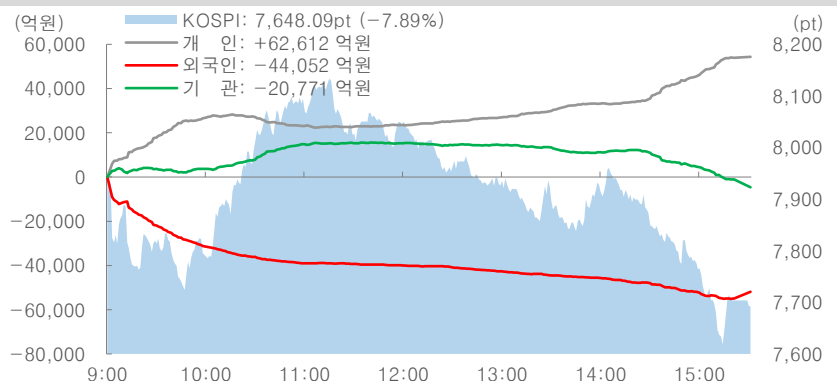
대형 반도체주 투자심리 위축되며 급락. 업종별 순환매 장세 지속

**은행:** 신한지주(+6.0%), KB금융(+4.1%), 하나금융지주(+3.8%)

**음식료:** 농심(+6.2%), 동서(+6.7%), 오뚜기(+3.4%), 롯데월푸드(+5.6%)

**전력기기:** LS ELECTRIC(-10.3%), 효성중공업(-7.7%), HD현대일렉트릭(-4.3%)

###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7월 글로벌 증시, 관심 사항. 방향성이 아닌 변동성. 필요한 건 신중함

- 6월 경험했던 투자자 학습효과 무너지면, 7월 증시 변동성 확대 예상
- 7월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변수 산적. 방향성 아닌 변동성 요인
- 물가, 금리 불안 상존 시, 증시가 상승하기 쉽지 않은 환경

### 6월 경험했던 투자자 학습효과(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가 무너지면, 7월 증시 변동성 확대 예상

6월 미국 증시(S&P500)는 고점을 낮춰가는 조정 장세였다. 4~5월 두 달 간 투자자들이 경험한 학습효과(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에 따라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일간으로 낙폭을 줄이거나 반등 구간도 나타나 월간 수익률은 -1.1% 제한됐다(월간 증시 변동폭 5.3%). 증시 하락폭이 커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학습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문제는 연속적일 수 없다는 점이다. 7월부터는 투자자들의 기존 학습효과가 무너지면서, 반발 매수세 부재로 증시 변동성은 커질 것이다.

### 7월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변수(고용, 물가, 통화정책) 산적. 방향성이 아닌 변동성 요인

7월 증시 일정을 살펴보면, 한쪽 방향의 증시 흐름을 지지해주기보다는 일정에 앞서 '경계심'이라는 변동성 요인이 혼재한다. 우선 1) 2일 발표될 6월 고용지표가 5월 결과와 동일하게 통화 긴축 우려를 부각시킬 경우, 2) 14일과 30일에 발표될 6월 CPI와 PCE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경우, 3) 27~28일(현지시각) 개최되는 7월 FOMC, 금리 동결을 유지하더라도 매파적 해석으로 귀결 시 잠재적 변동성 요인이 될 것이다.

7월은 과거 경험상 연간으로 미국 증시가 두 번째로 수익률이 높은 달이다. 21~25년 S&P500 지수의 7월 평균 수익률은 3.6%로 이를 염두에 둔 증시 강세를 예상하는 투자자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월별 수익률이 방향성 측면에서 과거 수익률과 흡사했던 달은 1월(1.4% VS. 과거 평균 이하 0.8%)과 5월(5.2% VS. 2.4%)일 뿐, 나머지 2월(-0.9% VS 0.1%), 3월(-5.1% VS. 1.7%), 4월(10.4% VS. -1.4%), 6월 수익률(-1.1% VS. 1.7%)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를 감안하면 7월 증시에 대한 낙관적 기대는 잠재적 위험이 될 것이다.

### 미국 증시, 23년 10월 이후 형성된 상승 추세 유효. 다만 7월은 상승하기 어려운 투자환경. 필요한 건 신중함

6월 FOMC 이후 미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물가와 긴축이라는 점에서, 물가 및 금리 불안이 상존하는 7월은 증시가 상승하기 쉽지 않다. 7월 들어 불거진 메타발 시 인프라 확장 사이클 종료 우려도 일회적으로 끝날 이슈는 아닐 것이다. 7월, 방향성이 아닌 변동성이 중요한 한 달이 될 것으로 보여 투자자에게 신중함이 필요한 때이다.

## 미국 고용: 과열 우려를 덜어낸 것에 만족

- 미국 고용 4개월 만에 시장 예상치 하회, 실업률은 4.2%로 하락
- 고용 과열에 대한 우려는 낮아졌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크게 변하지 않아
- 연내 인상 허들 높게 보고 있으나, 시장의 인상 전망은 계속될 가능성

### 차가워진 시장이 원했던 따뜻미지근한 고용

미국 6월 비농업 취업자는 +5.7만 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 +11.4만 명을 큰 폭으로 하회했다. 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것은 4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난 달 고용 발표 당시 3-4월 수치가 +9.3만 명 상향 조정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4-5월 고용이 도합 -7.4만 명 하향되었다. 실업률은 4.2%로 1년 여만의 최저치로 낮아졌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0.3%MoM, +3.5%YoY로 전년비 기준 소폭 확대되었다.

### 과열 우려는 덜었지만, 어딘가 째뼉한 둔화

워시 의장의 첫 FOMC 이후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주식시장도 흔들렸던 시점에서 이번과 같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고용 데이터는 시장이 가장 갈망했던 결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직전 2개월 간의 고용이 하향 조정되면서 3개월 평균 고용 증가는 지난달 발표 당시 +18.8만 명에서 이 달 +11.1만 명으로 크게 낮아졌다. 연준 금리 인상 전망을 키운 고용 시장의 '과열'에 대한 걱정은 일단 한 숨 돌렸다.

다만 이번 고용 데이터를 뜯어보면 6월과 같은 따뜻미지근한 고용 데이터가 계속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번 데이터에 유난히 튀는(?) 숫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먼저 산업별로 보면 레저 부문의 고용이 월드컵에도 불구하고 예상 외로 전월비 급감(-6.1만)했는데, 레저 부문을 제외하면 민간 취업자 증가는 5월 +5.7만 명에서 6월 +11.0만 명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체로 레저 서비스 취업자가 지금처럼 갑자기 감소하는 경우, 대개 1-2개월 내 반등했다.

두 번째로는 6월 노동참가율이 61.5%로,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로 하락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 추세와 달리 주 연령층인 25-54세, 그 중에서도 25-34세의 참가율이 급감했다. 마지막으로 6월 페이롤 데이터 응답률이 54.4%로 매우 낮았다는 것이다. 이는 2024년 말 이후 최저치이며, 같은 6월 기준으로는 1992년 이후 최저치이다. 다음 달 큰 폭의 수정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최근 고용 추이가 하향되면서 노동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를 일부 덜었다는 점에서는 소득이 있지만, 데이터의 퀄리티 등을 감안할 때 6월 한 달의 데이터에 큰 가중치를 두기는 어렵다. 워시는 시장이 지표를 보고 알아서 해석하라고 말했다. 전쟁 불확실성은 낮아졌고 유가도 급락했다.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와 고용의 추세는 아래보다는 위를 향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허들이 높을 수 있다는 시각은 변함없으나, 시장의 인상 프라이싱이 쉽게 후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슈퍼 엘니뇨, 곡물보다 강할 코코아

- 재개방된 호르무즈 해협, 수출 정상화 기대에 진정된 비료발 농산물 대란
- 주요 곡창 지대에 강우량 개선시킬 슈퍼 엘니뇨, 수확 가이던스 상향 가능
- 엘니뇨로의 전환, 지금부터는 곡물이 아닌 소프트 섹터가 주도할 구간

## 다시 개방된 호르무즈 해협, 수출 정상화 기대에 진정된 비료발 농산물 대란

곡물 섹터가 흔들리고 있다. 연초부터 상승세를 보이던 S&P GSCI Grain Index는 하락 전환했다. 그 원인은 곡물의 원료인 비료에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질소계 비료 수출의 33%, 황인산계 비료(원료) 수출의 44%를 차지한다. 그간 비료 가격에 반영됐던 리스크 프리미엄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량 반납됐다. 지난 자료 <곡물 가격 반등을 방해할 엘니뇨의 귀환(4/17)>에서 살펴본 것처럼 Cost Push 압력(원유/천연가스/석탄 가격 상승 → 질소/인산계 비료 가격 상승 → 곡물 생산 비용 상승)이 부재한 상황에서 곡물의 상승 동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 주요 곡창 지대에 강우량 개선시킬 슈퍼 엘니뇨, 수확 가이던스 상향 가능

엘니뇨 역시 곡물 가격에 장애물이다. 엘니뇨란 적도를 기준으로 무역풍(서태평양)의 이동 속도가 둔화될 때 발생한다. 기류는 라니냐와 달리 동태평양(또는 중태평양) 부근에 집중 형성되는데 곡창 지대(미 중부, 브라질 서남부, 아르헨티나)가 인접한 동태평양 연안은 강우량이 높아(따뜻한 해수 유입)지고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C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엘니뇨가 곧 수확량 확대를 암시하는 것이다.

NOAA(미 연방해양대기청)에 따르면 현재 동태평양 연안 해수면 온도는 평년대비 1.8°C 높은 엘니뇨 상태이다. IR 측은 올해 9~11월 평년보다 2.5°C 높은 슈퍼 엘니뇨가 출현할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최근까지 슈퍼 엘니뇨가 출현했던 때는 2023년 5월~2024년 4월과 2014년 11월~2016년 4월로 이 시기 때 곡물 가격은 어김없이 부진했다. 이번에도 상단이 제한적일 상황이다.

## 엘니뇨로의 전환, 지금부터는 곡물이 아닌 소프트 섹터가 주도할 구간

그러나 슈퍼 엘니뇨 상황에서도 수혜자는 존재한다. 바로 코코아, 커피, 원당 등으로 구성된 소프트 섹터이다. 엘니뇨 시 서태평양 연안 일대의 강우량은 평년보다 감소하게 된다. 이럴 경우 코코아 산지인 인도네시아는 엘니뇨발 가뭄에 노출된다. 최대 로부스타 커피 산지인 베트남 역시 육성 기간인 지금 가뭄에 노출되며, 2대 원당 산지인 인도 남부에서는 파종 기간(8~9월) 문순 지연으로 평년보다 건조한 현상이 나타난다. 수확 시즌 앞두고 가격 상방 변동성이 불가피하다.

특히, 이 가운데 코코아가 가장 취약하다. 코코아 나무는 4~5년의 생육 기간을 거쳐 매년 한 그루당 20개 이상의 코코아 열매를 생산한다. 문제는 다른 농산물과 달리 1~12월 전체가 수확 기간이기에 매월 수확을 앞두고 엘니뇨 영향에 노출된다는 사실이다. 주요 기관에서 2026/27년 전 세계 코코아 수급 전망치를 +26.7만톤(공급 우위)에서 +14.9만톤으로 하향 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층 더 강해진 엘니뇨, 지금은 곡물보다 소프트 가격과 관련 기업들을 주목해야 될 때이다.

# 신한지주 (055550)

박혜진  
권용수RA

hyejin.park@daishin.com  
yongsu.kwon@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30,000**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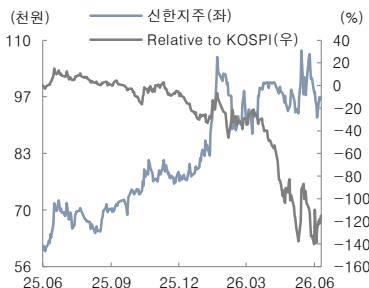
현재주가  
(26.07.01)

**96,400**

은행업종

KOSPI	8,303.41
시가총액	45,757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69%
자본금(보통주)	2,371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07,500원 / 61,7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437억원
외국인지분율	61.69%
주요주주	국민연금공단 8.97% BlackRock Fund Advisors 외 13 인 6.12%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4.1	3.3	25.4	55.0
상대수익률	10.2	-31.8	-36.4	-42.3



## 편안하게 매수하시면 됩니다.

- 2분기 순이익 비이자이익 실적 개선에 따라 컨센서스 소폭 상회 전망
- 중앙그룹 총당금 가장 미미, ELS 총당금 일부 환입 예상
- 하반기 자사주 추가 매입 9,000억원도 가능할 전망, PBR 0.75x

###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30,000원으로 상향, 업종 내 최선호주 유지

올해 내내 반도체 업종에 집중된 수급으로 은행주는 지속적으로 조정, 동사의 PBR은 0.75배까지 하락. 그러나 펀더멘탈은 더욱 견조해지고 있는데, 향상된 이익체력 덕분에 총 환원액이 당초 전망한 수준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음. 이를 감안한다면 은행주는 적극적으로 매수해야하는 구간이라는 판단이며, 동사의 목표주가를 120,000원에서 130,000원으로 8.3% 상향 조정함. 낮은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업종 내 최선호주 유지

### 2Q26 지배주주 순이익 1.63조원(QoQ +0.6% YoY +5.3%) 기록 전망

2분기 순이익은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1.59조원, +2.4%)할 것으로 전망. 은행은 대기업 중심 대출 성장 지속되고 있으며 마진은 1분기 수준인 1.6% 유지될 전망. 비은행계열사는 증권의 약진이 이어질 것인데, 2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이 90조원을 상회하여 1분기 대비 21.4% 증가하였기 때문. 1분기 증권 순이익은 2,884억원 기록하였는데, 2분기는 3,114억원으로 분기 대비 8% 증가 예상. 자본시장 호조에 상응하여 은행 수수료이익도 증가하여 금리상승으로 채권관련 손익 부진에도 전체 비이자이익은 1.21조원(QoQ +1.8%, YoY -4.4%) 기록 전망

중앙그룹 디폴트 관련 익스포저는 100억원으로 커버리지 가운데 가장 적어 총당금 영향도 가장 미미, 50억원 적립 예상되며 ELS 과징금 규모가 경감되고 있어 관련 총당금 일부가(300억원 예상) 당분기 환입 될 가능성 높음. 다만 대출 위험계수 조정 분기이기 때문에 상시평가 영향으로 전체 대손비용은 분기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

환원정책 관련 7월까지 7,000억원의 자사주 매입이 예정돼 있으며 하반기에도 7,000억원 추가 매입 할 것으로 우리는 추정하였는데, 지난 1분기 새롭게 제시된 밸류업 포물라에 따라 9,000억원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

	2024	2025	2026E	2027E	2028E
순영업수익	14,580	15,439	16,258	16,826	17,313
영업이익	6,470	7,023	7,412	7,499	7,709
순이익	4,518	4,972	5,683	5,688	5,776
YoY(%)	3.4	10.0	14.3	0.1	1.6
ROE	6.2	7.5	8.0	8.0	7.0
EPS	9,276	10,419	11,909	11,921	13,641
BPS	115,675	121,468	127,087	131,111	152,329
PBR	0.50	0.64	0.75	0.72	0.62
PER	6.21	7.51	7.98	7.97	6.96

자료: 신한지주,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